

Joseph MELANÇON

캐나다의 라발대학에서 수학하여 프랑스 소르본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몬트리올 대학을 거쳐, 현재는 퀘벡의 라발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퀘백의 서정적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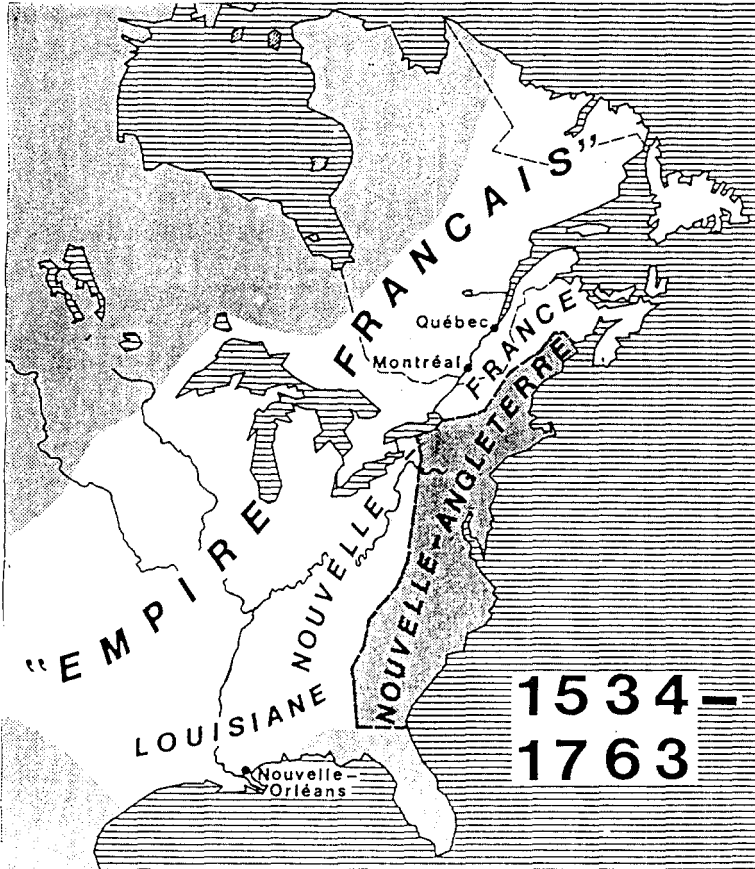
조셉 플랑송

우선 제가 ‘퀘백의 서정적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이 강연을 구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서정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감정의 소리, 마음의 소리, 즉 시를 의미합니다. 퀘백에 대한 여러 유형의 담론이 있지만, 오늘 저는 문학을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시적 담론 discours에 대해 이야기 하겠고 다음 번에 서술적 목소리들, 즉 이야기 récit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문학사의 한 측면, 즉 서정시의 역사만을 다룰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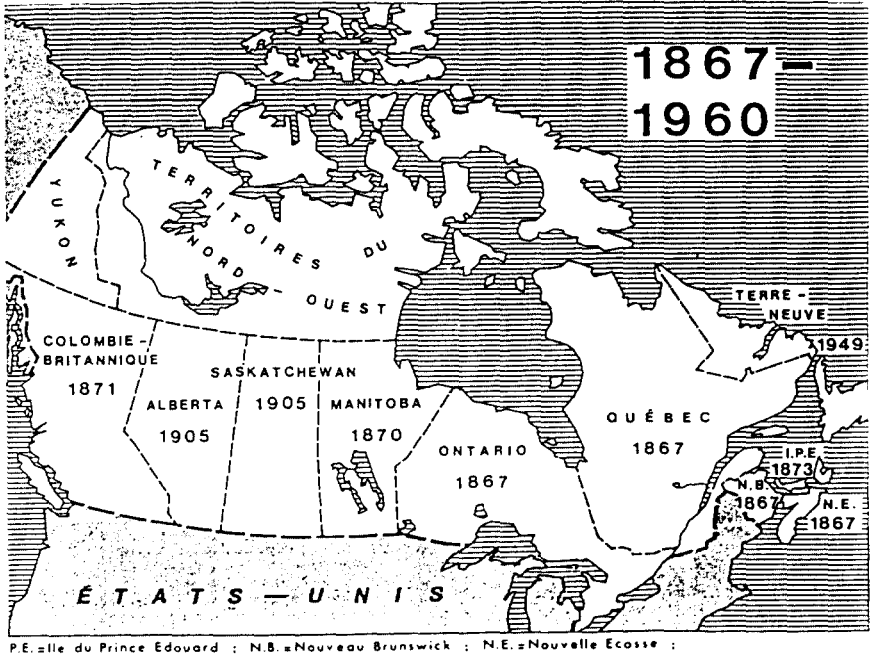
여러분께서는 나누어 드린 텍스트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학을 매우 좋아해서 여러분이 직접 작가들을 느끼고 그들의 텍스트를 맛보도록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문학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제 자신은 텍스트로부터 멀어져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제가 그 텍스트에 대한 지식을 드리려고 하거나 그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하려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작가들을 대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훨씬 글을 잘 쓰며, 여러분께 해드릴 이야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께서 제게 5분 가량만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선 캐나다의 지리학적 역사를 소

개해 드릴 것이며, 문학사에 접근하기 전에 먼저 캐나다의 정치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이미 캐나다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재미가 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아직 캐나다의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역사에 대해 — 물론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 설명하도록 5분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반대가 없으므로 동의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도 1]



[지도 2]



여러분께서는 두 장의 지도를 가지고 계실겁니다. 그 두 장의 지도는 보시다시피 간략화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현재 알고 계시는 카나다는 두 번째 지도에 있으며 그것은 1867년 이래 현재까지의 캐나다 지형으로서 미국의 북쪽, 북극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쪽의 전 부분은 얼음으로 덮여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인의 조상들인 몽고인의 후예, 이누이트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특이한 문화를 지니고 있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최근에 들어서야 그곳을 개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대국인 미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경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매년 조금씩 우리나라를 침범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백히 표시되어 있는 국경선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날엔가 우리가 미국인이 되어버리는 일을 원

하지는 않으니까요. 우리는 캐나다인으로 남아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미래를 알 수는 없겠지요.

첫번째 지도는 1534년에 도착한 자크 카르티에가 발견한 당시의 북미 그대로입니다. 두번째 지도와 비교해 보면, 캐나다의 서쪽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유럽쪽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 영국인들, 포르투갈인들 등은 아시아에 향료를 찾으러 가기 위해 길을 찾아 나섰고 꾸준히 대륙을 가로질러 찾아갔으나 강이나 호수에 계속해서 가로막혔습니다. 그들은 '서쪽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고 이 질문은 먼 훗날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대륙의 서쪽 부분을 발견하기까지는 1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복판에 프랑스 영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프랑스가 영역을 표시한 프랑스 영토입니다. 그리고 짙게 칠해진 부분, 그것은 신영국입니다. 영국인들과 브리타니크인들이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들은 한쪽을 신프랑스라고 부르고 그 아랫부분을 신영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스페인 사람들은 브라질에 도착해서 그곳을 신스페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브라질은 브라질이고 멕시코는 멕시코였습니다. 반면에 영국인과 프랑스인들 생각에 그것은 프랑스와 영국의 확장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치가 성립될 수 없었고 본국과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신프랑스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신프랑스와 신영국의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지도에 그 크기가 나타나 있듯이 신영국은 매우 작았습니다. 그러나 신영국은 프랑스령 캐나다보다 훨씬 빨리 확장해 나가서, 1763년에는 영국이 캐나다를 정복합니다. 신프랑스에는 그 당시 6만명의 프랑스인들이 있는 반면에, 신영국에는 24만명에 달하는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적으로 우세한 그들이 그 당시에 캐나다를 8번이나 침공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마지막 침공이 1763년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정복이었고 파괴였습니다. 그 후, 67년에 두번째 지도에서 보이듯이 10개의 주가 모여 연방을 만들었습니다.

다. 이제 여러분께 간략하게 캐나다의 정치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정치사를 네 시기로 나누겠습니다. 세분된 것은 아니나 우리에게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치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는 우리 논의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께 우리 논의의 윤곽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첫번째 시기는 프랑스 정체의 <신프랑스>라고 불리웁니다. 1608년부터 1760년 까지의 기간으로서 1534년에 이곳에 도착한 카르티에가 머무르지 않고 되돌아갑니다. 그후 그는 3번 다시 오게 되나 본국 출신의 식민지 주민은 남겨 두지 않았습니다. 본국출신의 식민지 주민이 정착하게 된 것은 1608년부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식민지가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저는 1534년이 아닌 1608년을 첫번째 시기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리고 1760년은 퀘벡이 멸망한 패배의 해입니다. 즉 신프랑스가 종말을 맞고 프랑스 정체가 끝나는 해입니다. 이상이 첫번째 시기입니다.

두번째 시기는 캐나다입니다. 이 캐나다는 영국이 캐나다라고 지칭한 그 캐나다로서 이것은 영국편에서 보자면 1760년 영국정체와 함께 시작되어 1867년까지 지속된 하나의 영연방 자치령입니다. 1760년은 영국이 점령한 해이고 1867년은 10개 주의 연합이 있었던 해입니다. 지도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러므로 이 기간은 <캐나다의 시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후 세번째 시기는 <캐나다 연방>이라고 불리며 1867년부터 1980년까지 입니다. 이는 오타와에 있는 하나의 중앙정부를 갖는 연방정체입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어제 모두 선거를 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캐나다 정부가 구성되겠죠. 그런데 각 주들은 그들의 정부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각 주들은 두개의 의회를 갖는 자치권을 갖습니다. 즉 하나는 연방의회이고 다른 하나는 주의회입니다. 현행 선거는 연합선거이고 내년에는 주선거가 있어서 어쨌든 각 주들은 상당 정도의 권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퀘벡이 자신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며 확장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1980년에 수상인 트뤼도는 헌법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냈

습니다. 1980년까지 우리나라는 독립국이긴 했지만 우리의 헌법은 런던의회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760년에 법령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헌법은 영국의회의 법령인 것입니다. 트뤼도는 헌법이 캐나다의 것이 되기를 요구했고 캐나다의 여러 주들이 모두 찬성하는 헌법을 만들기를 요구했습니다. 트뤼도는 1980년에 그 일을 실행에 옮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중대 문제인데 왜냐하면 인간의 권리가 헌법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약간은 미국과 비슷하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상급재판소가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결국은 미국과 비슷하게 판사들이 통치하게 되는 셈입니다. 새로와진 점이지요. 한가지 밝혀둘 것은 퀘벡이 공식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퀘벡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따라서 캐나다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1980년부터 트뤼도의 후임자는 퀘벡이 다시 캐나다로 되돌아도록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는 락크메이지와 찰스타운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두 수상들을 연합시키기 위해 세가지 시도를 했고 국민투표를 치렀으나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처럼 줄곧 허공에 뜬 상태입니다.

자, 이제 어쨌든 네번째 시기로 넘어갑시다. 네번째 시기는 더이상 연방이 아닌 현 헌법입니다. 독립국가가 되고서도 여전히 여왕의 대표자가 있긴합니다만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캐나다의 헌법입니다.

이제 점점 우리의 주제에 가까워지는군요. 본격적으로 문학사를 다루겠습니다. 저는 문학사를 다섯개의 시기만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보다 더 세분할 수 있으나 너무 복잡해지겠죠. 첫번째 시기는 프랑스 근원의 문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캐나다에 왔으나 거주하지는 않았던 프랑스인들이 쓴 텍스트들을 말합니다. 이 책들은 프랑스에서 출판되었고 프랑스인들을 위해 씌여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책들을 프랑스 근원의 문학이라고 부르며 그 시기는 1608년부터 1760년까지입니다.

니다. 저는 이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기 글들의 특징은 여행이야기라는 점에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모험가나 탐험가들이 장도에 오르면 이야기를 작성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오늘날 읽기에도 훌륭한 것들로서 아름다운 서술적 이야기들에 대한 강연에서 여러분께 그 발췌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캐나다를 발견한 자크 카르티에의 이야기, 퀘벡을 발견한 사뮈엘 드 샹플랭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여러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유럽 대륙에서 도착한, 북미 대륙이 존재했는지도 몰랐던,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대륙 앞에 선 사람들의 놀라움과 두려움이 나타나 있는 이야기들도 몇몇 있는데 이러한 텍스트들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는 영국의 정복이 있기 전까지의 프랑스 근원의 문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캐나다 근원의 문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퀘벡에서 일어났던 정복과 전투의 날짜를 잘 알아두어야만 합니다. 그날은 1759년 9월 13일이었습니다. ‘울프’의 군대는 전술을 사용하여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이라는 지형상 퀘벡을 점령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적으로 퀘벡을 우회하여 <아름다운 대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평원에 아침 8시에 도착했습니다. 전투장소로는 더없이 훌륭한 그곳에서 적색 군복의 영국군과 청색 군복의 프랑스군이 어우러져 벌이는 그 전쟁은 그야말로 불만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 8시에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몽칼므는 그곳에 없었고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는 45분간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45분만에 정복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장군들은 후방에 있지 않고 전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몽칼므는 그 자리에서 낙마했고 울프는 죽사했습니다. 몽칼므는 다음날 저녁 숨을 거두었습니다. 두 장군이 죽자 모든것이 끝났습니다. 군인들은 더 이상 무엇을 해야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군은 후퇴했고 영국군은 그곳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겨울을 지내며 다음해 봄을 기다렸

습니다. 전쟁은 겨울에 중단되었고 다음 해 봄에 그들은 “만약에 프랑스 함대가 도착한다면 퀘벡을 되찾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함대는 오지 않았고 도착한 것은 영국의 대형 함대였습니다. 모든 것은 끝이 났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1760년에 퀘벡을 제외한 전 식민지가 정복되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있었던 7년 전쟁처럼 이 전쟁에서도 파리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763년의 파리조약은 우선 중요한 문제인 유럽 문제, 프랑스와 영국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제가 캐나다 근원의 문학에 대해 말할 때, 1763년부터 1837년까지의 이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이 군사평의회를 장악했을 때, 군사정부는 프랑스인들에게 프랑스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고 이는 군대 내에 모든 장교들이 떠나고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족들은 프랑스로 돌아갔고, 주요 거상들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식민지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농민들, 소상인들 정도가 남았습니다. 옛체제는 사라졌고 지도자도 없이 새로운 체제하에서 재출발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캐나다는 완전히 영국 식민지가 되었고 남아있게 된 이들은 자신의 언어와 종교, 프랑스의 권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교묘한 영국인들은 프랑스의 권리를 인정해주어 불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항하기 보다는 우리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인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므로 우리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독립을 원하던 미국인들은 한창 독립전쟁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 출신 캐나다인들과 함께 미국인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훌륭한 전술이었습니다. 미국인들과 프랑스 출신 캐나다인들이 연합해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보다는 이 둘을 동시에 다루는 것이 더 나을테니까요. 소위 정치게임이라는 것이죠.

세번째 시기는 더이상 어디에 근원을 둔 것이 아니고 막 태어나려고 하는 캐나다 문학입니다. 캐나다 문학은 1837년부터 1867년까지

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떠났기 때문에 문학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60년간 문학적 공백기가 생겨났죠. 더 후에 가서야 캐나다 문학이 나타납니다.

자, 네번째 시기로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불어권 캐나다 문학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캐나다 사람들은 불어를 사용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0개 주가 모여 연방을 이루자 영국계 캐나다인과 프랑스계 캐나다인이라는 두 종류의 국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불어권 캐나다 문학이라는 이름이 비롯됩니다. 이 시기는 1967년부터 1937년 까지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시기로는 1937년부터 지금까지의 퀘벡문학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가지 일을 해보려 합니다. 텍스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텍스트는 캐나다 문학의 시기인 세번째 시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옥타브 크레마지나 루이 프레셰트 같은 위대한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두 사람 정도가 고려해 볼 만하고 다른 작가들은 부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프랑스 문학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들이 어떤 점에서 프랑스나 낭만주의 문학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 것입니다. 우선 낭송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가 단지 위대할 뿐만이 아니라 생동감이 넘치기까지 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낭송할 시는 「늙은 캐나다 군인」입니다.

늙은 캐나다 군인 Le Vieux Soldat canadien

조국의 어르신들이여,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의 숭고한 노력으로 압제에 항거하여
 우리의 미래를 구한 날들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이민족의 질곡 아래 신음해도 압박에 굴하지 않고
 항상 담당했던 그들의 영혼은
 프랑스의 추억을 자켜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희망조차도 더 이상 그들의 고통을
 누그러뜨릴 수 없어 보이던 그 슬픈 때에
 로마인의 용기를 가진 한 늙은 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도끼를, 손에 검을 들고
 우리의 변경에 그들 조국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
 그들의 삶을 바쳤던 영웅들의 혈통을 이으며

팔다리가 잘리고 쇠약해졌어도, 그의 고결한 피로부터
 여전히 남겨진 것을 프랑스를 위해 남겨두며
 그는 회한에 찬 그의 말년을 침묵 속에 흘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숭고한 전쟁의 매순간 전투 속에서
 최전선에서 얻을 불멸의 월계수를 위해
 그는 그 자신의 어떤 부분을 교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지를 눈부시게하는 검의 광채를 가진,
 새로운 전쟁의 신인 나폴레옹은
 유럽을 전쟁터로 바꾸어 놓고는
 승리를 흑사하며 너무 빨리 가버려
 곧, 그의 영광에 비해 너무 작은
 그가 얻은 낡은 세계는 그의 발자국 아래
 없을 것이라고들 했습니다.

「늙은 캐나다 군인」은 1855년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얽힌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760년 퀘벡 정복 이후에 퀘벡에 도착한 첫 번째 프랑스 배는 <카프리스외즈> 호였습니다. 이 배는 1855년에 도착했고, 이것을 계기로 크레마지 Octave Crémazie는 이 시 「늙은 캐나다 군인」이라는 위대한 애국시를 지었습니다. 때는 나폴레옹 3세 치하였습니다.

퀘벡의 서정적 목소리

이 시에는 아름다운 표현과 동시에 약간은 굉장한 웅변도 들어 있지만 어쨌든 이 시는 하나의 속삭임이며 말을 걸어오는 듯합니다. 이 시는 낭만적 찬가입니다.

루이 프레셰트 Louis Fréchette, 그는 프랑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최초의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한 민족의 전설」이라는 일천행의 장시로 그 상을 수상했습니다. 빅토르 위고를 아는 이들은 <세기의 전설>을 떠올릴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입김이 느껴지죠. 이 시, 「한 민족의 전설」에는 캐나다 민족의 모든 영웅들이 등장하고 그들 가운데는 1837년의 한 반역자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번 1837년을 암시했듯이 그 연도는 정치사에 기록될 만한 것입니다. 앞선 설명을 통해 알고 계시듯이 그 당시 책임자는 영국 정부였고 따라서 영국 정부가 모든것을 결정했습니다. 즉 독재정치였죠. 이 시기에 반란이 일어나서 영국인에 대항해 들고 일어났으나 군대가 없었던 관계로 곧 진압되었습니다.

생-드니 Saint-Denis

고개를 숙인지 오래된 어느날
사람들은 모욕을 갚기 위해 일어섰다.

어떻게 영구의 불길 아래 그들의 손으로 주조한
탄환들을 장착한 낡은 구식총으로 무장한
이 대등하지 못한 전력의 싸움 속에서
하루종일 그들이 포탄에 반격하는
그리고 끝내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역사의 그 장 앞에서는 꿈만 같은 것
오래된 내 친구 중 하나는 나에게 백번 그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상세히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는

늘 약간씩 떨렸는데 이는,
 그 사건의 유일하고 마지막 생존자들 중 하나인
 그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이기 때문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자유를 위해 죽은 피빛 어린 드라마의
 자세한 부분을 그가 품고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백명이 안되었다. 그 전날부터
 그들은 서로에게 속내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지휘자도 없이
 영성히 조직되었어도, 그들의 빼앗긴 권리에 대한 당당한 요구자
 들인
 이들이, 그들의 성스러운 반역 속에서 그리고 흔들림 없는 용기
 속에서
 막강한 영국에게 것처럼 감히 용감하게 대든 것을 생각한다면
 정신은 감탄한다.

이 시는 거의 서사적입니다. 한 작은 마을에서 반란을 일으킨 소수의 캐나다인들을 택해서 상징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약간은 프랑스 문학에서 초인적인 영웅으로 나타나는 로댕과 흡사하죠.

또 다른 시 「졸리에」를 봅시다. 이 사람은 미시시피를 발견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졸리에 Jolliet

커다란 흐름이 대초원 속에 잠들어 있었다.
 안개 속 저 먼곳에서는 고라니와 들소의
 양생의 무리들이 대상처럼 지나갔다.
 새벽빛에 둘러싸인
 사막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평선 위에서
 그의 순결한 장엄함을 펼치고 있었다.

뤼베크의 서정적 목소리

6월은 빛났다. 물 위에서, 잔디밭의 풀 속에서,
 정상에서, 시샘하는 깊이 저 속에서,
 풍요로운 여름은 그의 거친 사랑을 노래했다.
 남부에서 북부로, 해가 지는 곳에서 새벽이 오는 곳으로,
 장엄함 그 자체는 아직도 첫번째 날들의 장엄함을
 지키고 있는 듯이 보였다.

신비로운 작업이여! 정면이 민둥민둥한 바위들,
 팼파, 숲들, 야생의 동굴들,
 이 모든 거침없는 바람 아래에서
 떨고 있는 듯이 보였다.
 서글픈 고독이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경계없는 공간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상의 찬가가 울리던 날에처럼

다른 시기들과 비교하기 위해 이 시기에 대해 설명한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시를 통해 우리는 향수의 시에 대해 말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도가 심한 프랑스에 대한 향수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이 시를 어떻게 분석할까요? 이 시의 테마는 상실한 조국입니다. 이 주제는 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조국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된 일종의 향수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테마에 관해서 살펴보겠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의 관점을 택하고 있고 그 관점은 애국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는 그 교훈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조국에 대한 애국적 긍지를 가르치려는 노력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국은 과거속에 존재할 뿐이며 더 이상 프랑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에는 조국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소재로 넘어갑시다. 소재는 사건

들인데, 사건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본 것이지 공간적인 측면에서 본 것이 아닙니다. 다음 시기로 넘어가면, 갑자기 시간을 내던지고 공간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 이후로는 계속 시간과 관련될 것이고 공간은 잊혀질 것입니다. 즉 채워야 할 공간이 있는거죠. 이 시는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살리려는 서사적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약음기가 달려 있는 서사시라고나 할까요. 「롤랑의 노래」 같은 그런 서사적 목소리는 아니지만 일종의 서사시이긴 합니다. 그런데 서사시란 무엇일까요? 역사의 주역들에, 사건들에 위엄을 불어넣어 한 민족의 모델로, 상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에는 서사적 요소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런 까닭에 많은 낭만주의자들, 빅토르 위고나 샤토브리앙, 라마르틴 등은 이 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자, 이상이 우리가 다룰 첫번째 시기입니다.

두번째 시기로 넘어갈까요. 텍스트에서부터 시작하죠. 우리는 텍스트에서부터 출발하여 이 시기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상당한 발전이 있을겁니다. 에밀 넬리강 Émile Nelligan을 소개하죠. 에밀 넬리강은 우리의 랭보입니다. 그는 16세에 글쓰기를 시작해 19세에 글쓰기를 마감했습니다. 그는 광기에 빠져들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당했습니다. 그는 19세까지 전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랭보가 지녔던 그런 힘은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은 랭보의 표지를 지닌 아주 젊은 시인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기의 시는 더이상 서사적이지 않은 다른 어떤 시입니다. 이번에는 서사적이기보다는 우리에게 친숙한 느낌을 줍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꺼이 알려주고 싶은 훌륭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우리에게 수많은 겨울들과 눈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와 본적이 있는 사람들은 눈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시겠죠. 그는 눈에 관한 아주 자그마한 시 한편을 썼습니다. 이 시는 요란하지는 않으나 제 생각에는 잘 울려 퍼지는 음악처럼 아주 아름답습니다.

겨울 저녁 *Soir d'hiver*

아! 눈이 내렸다!
 내 창은 성에의 정원
 아! 눈이 내렸다!
 내가 지닌, 내가 지닌 고통 속에서
 사는 데서 오는 경련은 무엇일까!

모든 연못이 얼어있다.
 내 영혼은 어둡다. 나는 어디에? 나는 어디로?
 모든 희망은 얼어있다.
 나는 새로운 노르웨이
 블론드 빛 하늘이 그곳을 떠나버렸다.

울어라, 2월의 새여
 사물의 불길한 전율에서
 울어라, 2월의 새여
 내 눈물을 애도하고 내 장미들을 애도하라!
 노간주 나무 가지에서

아! 눈이 내렸다!
 내 창은 성에의 정원.
 아! 눈이 내렸다!
 내가 지닌, 내가 지닌 모든 권태에서
 사는 데서 오는 경련은 무엇일까!...

이 시에는 심오한 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대지에 뿌리내린 나무의 망령이 떠돌고 그는 미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그 당시 매우 어렸습니다. 17살이었죠. 그러나 옆에 있

는 다음 시를 보십시오. 이 시에서는 ‘황금의 배’로 나타나 있지만, 그는 ‘배’라는 랭보의 테마 아래에서 마치 자신의 광기를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광기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생각해가면서 이 시를 읽어보십시오. 마음을 사로잡는 시입니다.

금으로 된 배 *Le vaisseau d'or*

이것은 금덩이 속에 재단되어 있는 커다란 배
그의 돛은 미지의 바다 위에서, 창천을 건드렸다.
사랑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벌거벗은 육체로
넘치는 햇빛 속에서, 뱃머리에 펼쳐져 있다.

그러나 그 배는, 사이렌이 노래하는 기만적인 대양 속에서
커다란 거품을 일으키려 어느 날 밤 왔다.
그리고 큼직한 좌초는 변함없는 관인, 심연의 깊음 속으로
그의 배를 기울였다.

이것은 금으로 된 배, 그 반투명의 측면은,
협오, 증오, 신경증인 미숙한 선원들이
그들 사이에서 빼앗으려 한 보물들을 드러낸다.
짧은 폭풍 속에서 그 배로부터 남은 것은 무엇일까?
버려진 배인 내 가슴은 무엇이 됐을까?
저런! 그것은 꿈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아버렸다!

이 시는 꿈의 심연으로서 즉 그의 전 생애가 담겨있습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고 꿈이 그를 데려갔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자장가를 들을 텐데, 이 시는 아주 아름답고 약간은 베를렌느를 상기시킬 것입니다.

자장가 Berceuse

사월 밤의 우울한 침묵 속에
 누군가 울고 있다.
 유배의 그 긴 비몽사몽 속에
 누군가 울고 있다.
 그의 고통을 슬퍼하는 누군가가 있고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다...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지 않고 일상생활에 가까운, 일상생활 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에 애착을 갖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알랭 그랑브와 Alain Grandbois를 볼까요. 알랭 그랑브와는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는 행운을 지닌 시인이었고 그는 이 유산을 가지고 세계를 일주했던 최초의 국제적 시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는 벨리강과 대조됩니다. 벨리강은 몬트리올의 젊은 시인이었던데 반해 알랭 그랑브와는 대단한 국제적 시인이었으니까요. 제가 낭송할 시는 「옷장을 닫읍시다...」입니다.

옷장을 닫읍시다... Fermons l'armoire...

마법의 옷장을 닫자.
 놀이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내 손은 더이상 자유롭지 않고
 더이상 권리를 심장에 겨눌 수 없다.
 내가 창조한 세계는
 그 자신의 밝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 태양으로
 내 눈은 멀고
 내 세상은 나와 더불어 집어 삼켜졌다.

나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박힐 것이고
 밤은 내 안에 살고 그것의 비극적인 덧들도
 결의 목소리는 더이상 나에게 와닿지 못할 것이다.
 나는 광물의 귀먹음을 지니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얼어붙었다.
 나의 의심마저도
 너무 늦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미 언덕은 낮을 삼켜버렸고
 이미 나는 내 망령의 시간을 가리킨다.
 그러나 나는, 이 황금빛 황혼이 아직도
 라일락의 부드러움 위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본다.
 별로 구멍난 이 경배할 밤의 베일을 보고
 침범되지 않은 강가를 지닌 이 강들을 본다.
 사랑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사랑의 지나치게 고정된 시선을
 나는 너무도 사랑했다.
 나는 비길 데 없는 후광으로 나의 여인들을 너무도 장식했고
 나는 너무나 경이로운 정원을 너무도 열심히 경작했다.

그러나 일단 숙소의 흰 빛 속에서
 완벽한 세 그루의 칠편백을 보았을 때
 나는 보았고 침묵한다.
 그리고 내 고뇌는 비길 데가 없다.

그에게서도 밤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위의 시에 나타나 있는 <동굴에 간힘>은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점은 벨리강과 매우 유사합니다.

저는 이 두번째 서정적 시기의 시를 내밀의 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19세기의 모든 서사적인 매혹을 지닌 시들 이후에 일종의 내밀함이, 즉 자기 자신에게로의 침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

기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제는 더이상 잃어버린 조국이 아닙니다. 이제 프랑스라는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시는 사라지고 우리에게 친숙하다는 의미에서 더 겸손하게 가족적이라고 부를만한 그러한 조국을 세우려는 노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주제는 <소유>가 됩니다. 즉 자신의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소재는 더이상 큰 사건이 아니라 일화가 됩니다. 어조는 이제 내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면적 어조는 마치 속삭임과 같습니다.

세번째 시기는 생-드니 가르노 Hector de Saint-Denys Garneau 로 대표됩니다. 이 시기는 또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저는 「새장」이라는 시를 인용하겠습니다. 이 시에는 의미론적 유희가, 상당히 섬세한 말의 유희가 있습니다.

새장 Cage d'oiseau

나는 새장
새를 넣어둔
뼈로 된 살로 이루어진 새장
뼈로 된 내 새장 속의 새
그의 등지를 만드는 것은 죽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의 날개가 구겨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웃었을 때
만일 사람들이 갑자기 멈추면
그 새가 저 속에서
방울처럼
지저귀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갇혀있는 새
 뼈로 된 내 새장 속의 죽음

날고 싶지 않을까
 새를 다시 가둘 이가 당신일까.
 나일까.
 무엇일까.

오직 모든 것을 먹어치운 후에만
 새는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내 가슴
 그 안에 삶을 지닌
 피의 원천

그것은 부리에 내 영혼을 물고 있다.

이 시는 비극적입니다. 이 시는 새장 속의 새와 심장과 피의 관계이며, 그 세가지들을 서로 접근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시에는 말에 대한 유희가 나타나며, 동시에 잘 정의되지 않는 일종의 깊은 고뇌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뇌가 죽음에 대한 고뇌는 아닙니다. 또 다른 텍스트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동반」이라는 시입니다.

동반 Accompagnement

나는 어떤 기쁨과 나란히 걷고 있다.
 내 것이 아닌 기쁨과
 내가 취할 수 없는 내 기쁨과

퀘벡의 서정적 목소리

나는 기쁨에 찬 나와 나란히 걷고 있다.
 나는 나와 나란히 걷는 기쁨에 찬 내 발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나는 보도 위에서 위치를 바꿀 수 없고
 나는 그 발자욱들 속에 내 발을 놓을 수도
 저게 나라고 말할 수도 없다.

나는 지금으로선 이러한 동행에 만족한다.
 그러나 나는 몰래 교환을 꾀한다.
 온갖 조작과 연금술을 통해
 수혈을 통해 원자의 자리바꿈을 통해
 균형잡기 놀이를 통해

어느 날, 바뀌어
 내 옆의 내 발이 내는 소음이 줄어들자
 내 왼편에서 시드는
 해매는 내 발자욱의 상, 과 함께
 가로지를 수 있는 거리로 접어드는
 이방인의 발 아래에서
 기쁨의 그 발자욱들의 춤으로 내가 이끌릴 수 있도록

이 시에는 친숙한 것들이 들어있지만 — ‘보도’가 그것입니다 — 또 다른 것, 아주 심오한 감정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종종 자신에 대해 낯설게 느낍니다. 그래서 위의 시에 드러나 있는 그러한 기쁨도 생겨납니다. 마치 사람들이 ‘나는 떠난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산문으로 된 짧은 텍스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텍스트를 읽으면 여러분은 생-드니 가르노가 어떤 식으로 단어들에 대해 천착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는 더이상

사건들도 일화들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는 본질적인 것, 즉 언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들 Les mots

나는 말들의 세계 앞에서 깨어났다. 나는 말들의 부름을 들었다. 나는 실체에 목마른 말들의 끔찍한 요구를 들었다. 나는 그것들을 내 자신을 통해 충족시키고 부양해야 했다. 나는 이야기를 들으며 앉아있는 아이 같았고; 그 이야기들은 더할 나위 없었다. 그것들은 우리의 꿈과의 동행 때문에, 우리의 귀에 소음만은 아니었다; 이야기의 인물들의 키는 완벽했고, 그들의 경이로움 속에서 보일 수 있는 너무도 훌륭한 요정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들의 자매 요정들에게 대한 격렬하고 탐욕스러운 요구를 지니고 있었다. 저런! 많은 대화들이 끝나기 전에 죽어버리고 어떤 목소리가 점점 두터워지는 부재 속에서 계속 시편을 읊조리고 있다.

말들의 하늘은 아이들에게 경이로운 이야기의 세계가 나타나 듯 나타난다.

말은 더 이상 텅 빈 사물이 아니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말들의 세계는 저 너머이자 세계의 어딘 지역이고 그곳에서 세계는 지성적인 것 속에 수용되는 것이다. 말은 어떤 문화 전체, 어떤 숙고 전체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홀로는 지식이 아니지만, 어떤 지식의 기호이다. 그로부터 말의 끔찍한 요구가 나온다. 표현의, 질료적인 명명의 어떤 단순한 도구 앞에 직면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에 직면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신 앞에 직면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위의 시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자각, 그것은 20세기에 속한 것입니다. 이 시는 말라르메를 연상시킵니다. 말라르메의 단어를 알고계시겠죠. 말라르메는 마력적인 언어를, 결정적

인 언어를 추구한 시인입니다. 그는 언어의 아름다움을 붙잡아두고 싶어했습니다.

<상실>의 시라고 분류할 만한 시들이 있습니다. 생-드니 가르노에게서 기쁨이 발견된다면, 그 옆에는 이 도도한 기쁨을 상실한 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감은 “이제 너무 늦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알랭 그랑부와의 말할 때, 이미 그에게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르 Anne Hébert의 아주 아름다운 텍스트를 봅시다. 이 시인에게서는 거세게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물줄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보다시피 아주 상징적입니다. ‘나는 세상에서부터 버려진 아이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상실의 주제가 여기서는 내면의 조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 시작부분에서 잃어버린 조국에 대해, 그 다음에는 가족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만한 조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내면의 조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퀘백 시에는 이러한 하나의 움직임, 즉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음>이라고 이름할 만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자기 내면에서 자신의 조국을 추구합니다. 즉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은 우리고, 그것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의 단 하나의 주제는 ‘소외’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것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그러한 소외에서는 거의 병적이라고 할만한 어떤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그 소재를 볼까요. 그 소재는 항상 영혼의 상태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모든 상태를,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한 그러한 온갖 상태들을 맛봅니다. 그리고 어조는 상징적 어조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첫번째 어조는 서사적 어조였고 두번째 어조는 내면적 어조였다면, 지금의 어조는 상징적 어조입니다. 새장이니 새니 모두 상징적인 것입니다. 시란 기호를 상징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발레리였는데, 이러한 시들도 대체로 그리하여 모든 기호를 상징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장은 더이상 새장이 아니라 허파이며, 새는 더이상 새가 아니라 심장입니다.

안느 에베르는 우리나라 작가 중 가장 위대한 작가들 중의 한명이며, 특히 그녀가 쓴 소설때문에도 유명합니다. 이제 네번째 페이지에 있는 아느 에베르의 1953년에 출판된 『왕들의 무덤』이라는 시집에서 한편을 읽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안느 에베르는 생-드니 가르노의 사촌이기도 합니다.

야윈 소녀 La fille maigre

나는 야윈 소녀
내겐 아리따운 뼈들이 있다.

그것들에 나는 세심한 정성과
알 수 없는 동정심을 갖고 있다.

마치 오래된 쇠붙이처럼
그것들을 나는 쉬지 않고 닦는다.

보석들과 꽃들은
제 철이 아닌 걸

언젠가 나의 연인을 사로잡아
날 은빛 유골함으로 만들게 하리라.

그의 빈 가슴을 대신해
난 목메달리라.

충만한 공간이여,
불현듯 네 속에 있는 이 열정 없는 주인은 무엇인가?

너는 견고
움직인다.
너의 움직임 하나 하나는
유폐된 죽음을 두려움으로 장식한다.

나는 선물인 양
네의 떨림을 받는다.

그리곤 이따금
굳어버린 네 가슴쪽에
물기어린 내 눈을
살포시 뜬다.

그러면
초록빛 물처럼
야릇하고 천진한 꿈들이 움직인다.

이 시는 생-드니 가르노의 시보다 한결 난해하긴 하지만 그녀의 사촌에게서부터 빌어온 흡사한 모티브와 기호, 상징들이 눈에 띈다. 「말의 신비」라는 작품을 다시 예로 들겠습니다. 이 작품은 시인들이 언어의 의미작용에 대해 품고있는 강박관념을, 말들에 대한 강박관념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작품은 일종의 산문이나, 시적 산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의 신비 *Mystère de la parole*

한 고요한 나라에서 우리는 두 손에 칼을 빼어 쥔 채로, 사람들의 정열을 받아들였다.

우리의 가슴은, 불이 우리를 화해시키고 그 빛이 우리 죄의 어둠을 부수었던 때, 그 날을 잊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나약함이었고, 애덕은 두려움과 수줍음에 앞서 홀로 있었다

그것은 근원적 정의 안에서 세계를 만들어냈고 우리는 우리 사랑의

극진한 생명력 안에서 이 사명에 한 몫을 나누어가졌다.

우리 속의 삶과 죽음은 비호권을 받아들였고, 앞뚫보는 눈으로 서로를 응시했고, 정확한 손길로 서로를 만졌다.

향기로운 화살들이, 극심한 방탕에 상처입은 자들처럼 우리를 지상에 붙잡아 두며, 우리를 관통했다.

이 시에는 넬리강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말과 말을 결합시킬 때 지나칠 정도로 숙고한다고나 할까요.

이제 마지막 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61년 이후의 최근 작가들을 살펴봅시다. 변화된 어조가 느껴질 것입니다. 「생-로랑에게 바치는 오드」를 지은 가티앵 라푸앵트 Gatien Lapointe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생-로랑은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큰 강입니다. 이 강 상류는 그 폭이 1960킬로미터에 달하나 이 강이 퀘벡에 도달했을 때 그 강은 폭이 많이 줄어들어 거대한 깔대기 모양을 이루며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그렇다 치고 이 「생-로랑에게 바치는 오드」는 상징적입니다.

생-로랑에게 바치는 오드 Ode au Saint-Laurent

하지만 내 나라의 싸움들을 누가 겪었는가.

집들 하나 하나 사이의 이 광활한 공간을 보았는가.
우리의 눈 속 이 거대한 유배지를 보았는가.

나의 희망의 동반자들을 내게 보여다오.

오 눈처럼 희고 폭풍과도 같은 나의 친구들이여
우리의 머리를 불사르는 이 차가운 하늘이여
우리의 외침들이 길없고 해메는 이 광대한 숲이여
새들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몸짓이여
사람은 어떻게 이곳에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말로 이 영토를 소유할 것인가.

사람들 하나 하나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다.

우리는 대지를 바라볼 시간이 없다.

추위는 우리를 달리게 만든다.

하지만 내 나라의 사람을 가까이서 보았는가.

이 수천의 호수와 산들을 보았는가.

그것들의 손바닥 안에서 누가 짐승으로부터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는가.

그들의 눈 속에서 이 거대한 사막을 또한 보았는가.

여기 각자가 죽마를 타고 걷는다.

우리는 하나의 본능적인 몸짓 속에서 존재한다.

우리는 한 마디의 말 속에서 태어난다.

세상의 강들에 우리는 어떤 밀몰을 이끌어갈 것인가.

폴-마리 라푸앵트 Paul-Marie Lapointe는 말라르메의 시에서부터 돌아와 있습니다.

한 젊은 반란자를 위한 묘비명

Épitaphe pour un jeune révolté

너는 죽지 않으리 새 한 마리가 여름보다 더욱 정적이고 더욱 뜨거우며

빛의 창조만큼이나 금빛이고 찬란한 깃털의 날개로

너의 유해를 옮긴다.

부드러움들과 가슴들과 속삭이는 흥분들이 세상들 사이를 여행한다.

그들 속에서 더욱 찌르는 듯 아픈 육신들의 융합처럼

별들이 뜨고 지는 것처럼

기적들의 머리 속에서 한 순결한 처녀가 나타나는 것처럼

너는 죽지 않으리 새 한 마리가
 어디에선가의 여름의 작열보다 더 강렬한
 예언으로 두루 퍼진 대초원보다 더 뜨거운
 인디언과 백열보다 더 장중한 네 가슴에 등지를 뜬다.

...

너는 죽지 않으리.

어디에선가 얼어붙은 한 도시가 마차들을 소리쳐 부르리라.
 수확과 피를 무르익힐 한 평화로운 보병대가
 콘크리트와 초록 속의 자동차(장갑차)들과 똑같은 자격으로
 순회하리라.

너는 죽지 않으리 너의 사랑은 영원하리라.

계속하죠. 질 비노 Gilles Vigneault입니다. 그의 시는 하나의 노래입니다. 질 비노는 자신의 노래를 직접 부르는 시인들의 범주에 드는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이 시는 훌륭한 노래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

내 고향 사람들 Les gens de mon pays

내 고향 사람들 그들은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들리기 위해 말하고 말하기 위해 말한다 그들의 말을 들
 어야 한다
 말하는 이는 이따금 진실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말하는 이는 행복이다
 쾌락에 그물코처럼 이어진 불행은 가로질러 행복을 붙잡으려면 참
 으로 시간이 필요하리라 얼마나 그것을 잠꼬대처럼 되뇌었으며
 얼마나 그것에 대해 쉽게 말했던가 내 고향을 말하며 나는 당신의
 말을 듣는다 내겐 발로 추는 그곳의 춤이 있으며
 귀로 듣는 음악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을들을 세우기 갈망하는
 이 눈덮힌 사막 저 멀리서 드문 드문 나는 당신의 말들과
 이야기들을 되따라 하여 반항하는 당신의 메아리 조금 말고는 내게

퀘벡의 서정적 목소리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리라

문들의 앞 층계 위에서 당신이 재잘대는 소리를 나는 듣는다 그리
고 울타리 문
여기저기서 봄 가을에 당신의 너무 짧은 여름과 너무 긴 겨울을
노래하는 소리를 나는 듣는다 당신이 저녁에 아늑한 시간을
꿈꾸는 것을 나는 듣는다

다 끝이 날 경작과 희망과 사랑과
딸을 시집보낼 이웃이 문제다 나무 껍질이나 밧줄 처럼 우울한 목
소리 굳어진 목소리가 문제다
이 고장 저 고장 성가소리 연인들의 목소리 마을의 사랑들로 부드
러워진
완만한 길들 도시에서는 싫증나하는 아름다운 옛 모습들의 목소리

학교에서 복작거리는 소리 연설들과 분리 상품보관 창고
그리고 모퉁이의 식당 다리들 강둑들 선관 선창들
당신의 모든 해안의 외침소리들이 내 창에 이르러 내 귀를 때어버
리듯 한다

그의 상상은 하나의 물결과 같아 끊임없이 흘러가다가 <자유>라
는 단어 위에서 멈춥니다. 매우 아름다우며 모든 사람들에게 가 닿을
정도로 대중적이며 극도로 마음을 사로잡는 서정적인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네번째 시기, 이 마지막 시기를 <희망의
시>라고 부르겠습니다. 60년대부터 우리가 자립한다면 위대한 민족
이 될 수 있다는 감정이 생겨났고 그래서 정부는 거대한 전기 회사
들을 구입하여 <이드로-퀘벡 Hydro-Québec>을 건설했습니다. 우리
는 거대한 댐들을 건설했고 이 댐들은 모두 처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영국 사람들의 힘으로 만들어졌
고 영국 것만이, 미국 것만이 좋다고 말했으나, 그것은 훌륭한 댐이
있으므로 우리도 훌륭한 기술자들을 갖고 있으며 무엇인가를 할 줄
아는 민족에 속하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

간 과장한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주 희망을 느끼게 되었고 그 희망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일을 해준 셈입니다.

이 시기의 테마는 건설해야 할 조국으로서, 에밀 벨리강의 내면적 조국과는 구별됩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것을 향한, 외부로 향한 열림이 보입니다. 즉 현재의 자신에 대한 자각이 보입니다. 주제를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민족의 조국, 즉 <췁벡>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소재는 언어들이 위치해 있는 공간입니다. 비뇨는 자신의 모든 언어들이 위치해 있는 공간을 들판과 마을, 우리나라 도처에, 다양한 어투의 사람들, 우리나라의 사람들 사이에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시는 연이어 나오는 말들이며, 사물들에 대하여 말하는 행복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어조는 수사학적인 어조인데, 이 경우 수사학적인 어조라는 말은 고대적인 의미로, 회람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수사학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시인들은 우리 민족에게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을 물어넣기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나섭니다. 이제 저의 결론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기술한 역사도 있고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술한 역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문화란 또한 이러 시들, 즉 시적 목소리들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소리들은 결국 췁벡의 문화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텍스트들을 만들었던 프랑스인들에게서부터 출발하여 그들을 모방하고 싶어했던 작가들을 거쳐서 차츰차츰 우리 자신의 문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제한된 몇 개의 텍스트들을 통해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이 텍스트들을 갖고 계시다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뭏든, 그 텍스트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강렬하게 이야기해드릴 것입니다.